

행정전문가 출신들 한판 승부

6·13 지방선거 표발 점검

고흥군수

고흥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후보와 민주평화당 송귀근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두 후보 모두 행정전문가다. 공 후보는 재정경제부 홍보담당관,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4년 공직에서 물러나 대선 전 민주당에 입당, 정책위 부의장과 원내대표 정책 특보를 맡았다.

송 후보는 30대에 장성부군수와 고흥부군수를 역임하고 광주시 기획관리실장·행정부시장 등을 지냈다.

단수 추천으로 민주당 후보가 된 공영민 전 제주도기획관리실장은 지난 3년간 고흥군 515개 마을과 논밭을 누비는 등 지역민들에게 공을 들였다.

그는 녹동신항 물류기지 확장, 금산 오천항의 국제항 개발, 녹동에서 대서까지 해안선을 따라 관광 일주도로(국가 지원 지방도77호선) 개설 등을 공약했다.

또 농수축산업 생산·가공라인 기계화·자동화 시스템 구축, 고흥만에 첨단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농산물연구단지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도 약속했다.

복지정책으로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 정책을 제시했다. 군내버스 안내도우미 운영, 중증환자 간병인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마을회관에 고독돌봄센터 운영 등을 내놨다.

고흥군수 후보

정당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이름(나이)	공영민(64)	송귀근(61)
주요경력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주요공약	·녹동신항 물류기지 확장, 금산 오천항 개발 ·고흥만 첨단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농산물연구단지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마을회관에 고독돌봄센터 운영 ·교육 무상 지원, 고교 무상 급식	·농수축 스마트팜 집중 육성 ·로컬푸드 대형 직판장 개설 ·전남 최고 고흥건강복지타운 건립 ·어르신 무상 밥상 서비스 확대 ·남해안 제1의 해양관광지 육성

민주당 공영민 對 평화당 송귀근 대결

금산 오천항 개발·'잘 사는 고흥' 공약

도 신생아에서 2세까지 엄마도우미·아기돌보미 지원 확대, 방과후교과 6학년까지 전면 실시, 중·고교생 교육 무상 지원, 고등학교 무상 급식 실시 등도 약속했다.

평화당 송귀근 후보는 지난 선거에 이어 두번째 도전이다. 여기에 황주홍 국회의원의 조직도 든든한 지원군이다.

송 후보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잘 사는 고흥' 만들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농수축 스마트팜 집중 육성, 청년 귀향 프로젝트 추진, 체육관광 인프라 개발, 국가 및 전남도 산하 연구기관 유치, 로컬푸드 대형 직판장 개설, 재

래시장 활성화, 고흥 대표 먹거리 개발 등을 내놨다.

송 후보는 또 '장수복지 고흥' 만들기도 추진한다.

전남 최고 고흥건강복지타운 건립, 녹동 실내수영장 건립,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지원센터 추진, 어르신 '무상 밥상'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고흥=주각중기자 gjuu@kwangju.co.kr

민주 제1선거구 '감점 적용 잘못' 재경선 ... 후보 모두 반발

전남도의원(고흥)

고흥 광역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이 시끄럽다. 후보 감점 적용 잘못으로 경선을 다시 치르기로 하면서 기존 1위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고흥 제1선거구 광역의원 후보 경선을 재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실시한 경선에서는 박진권(42.16%) 후보가 이용주(32.97%) 후보를 물리치고 1위에 올랐다. 2위인 이 후보가 탈당 경력 감점 20%를 받으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이 후보는 감점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중앙당은 '지난해 3월 이전 입당자는 지역위원장이 인정하면 감점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당은 고흥 제1선거구

광역의원 후보 경선을 다시 치르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1·2위 후보 모두 반발하고 있다.

공천장을 눈앞에서 놓친 박 후보는 "상대 후보 밀어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위를 한 이 후보는 재경선 아닌 감점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평화당에서는 송영국 후보를 내세웠다. 송 후보는 팔영농협 이사과 민주자치고흥연대 대표를 맡고 있다.

제2선거구(도양읍·풍양면·도덕면·금산면·도화면·포두면·봉래면·동일면)는 박규래 민주당 후보와 정순열 평화당 후보가 겨룬다.

박 후보는 고흥군의원과 전남도위원을 역임했다. 박 후보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고흥군의회 재선 의원으로 고흥군보영회장을 지냈다. 정 후보는 도양

고흥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나이·정당·경력)
제1 선거구	민주당 재 경선 실시 송영국 (57·평·민주자치고흥연대 대표)
제2 선거구	박규래 (68·민·전남도의원) 정순열 (66·평·전 고흥군의원)

민=더불어민주당, 평=민주평화당

읍 북촌리 해안도로와 피항용 방파제 신설, 출항 항우 우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인프라 구축, 농수축산물 판매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13 선거 현상

전남지사·광주시장 후보

김영록 "전남, 유라시아 협력 주도적 역할해야"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전남이 새로운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맞아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서해안 경제협력벨트', 나아가 유라시아 교류협력의 출발점으로 서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전달한 철도구축 계획 등 남북경제협력 등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구 구상'이 전남에서부터 비롯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신 경제지구구상은 '서해안벨트'와 '동해안벨트' 양축을 비무장지대(DMZ)로 연결해 한반도에 H라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목포~서울~개성~평양~신의주로 이어지는 '서해안벨트'는 한반도 서해안을 산·물류·교통을 중심으로 한 경쟁벨트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나경재, 아동·청소년정책 공약 발표



나경재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는 3일 자신의 8호 공약인 아동·청소년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더 행복해지는 광주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에게도 동등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공약으로 ▲어린이집과 주요 골목길 안전존 지정 ▲급식에 NON-GMO식단 제공 ▲석면없는 학교 ▲공정정기 지원 ▲0세~4세까지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 지원 ▲아동주치의제 도입 등 아동부상의료 시대를 약속했다.

윤민호 "아이들이 행복한 광주 만들겠다"



윤민호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3일 어린이 날 특별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게 할 것인가에만 집중되어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저 출산 정책과, 보육의 책임을 부모나 양육자에게만 떠넘기면 안 되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광주, 양육자가 아동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광주, 보육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미세먼지 기준 별도 책정, 보호조치 강화,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전기차) 교체 ▲만 12세 이하 아동수당 지급 등 보육 복지 관련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서삼석 "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지정 환영"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후보는 "고용노동부가 영암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 후보는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적 침체로 인한 일자리 고용난에 대해 정부가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영암군 모두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해 조선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해양플랜트를 비롯한 해양레저장비산업 등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청장·시장·군수 후보

김병내 "어르신 맞춤형 복지 구축할 것"



김병내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3일 '어버이날 큰잔치'가 열린 남구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인사하고 맞춤형 복지를 통해 어르신이 더 즐겁고 행복한 남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질병과 장애에 대한 문제, 건강한 인지적·신체적 기능 유지, 생산적 활동 보장을 통한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로당 내에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활동과 사회활동 위해 적극 확대해 나가고, 경로당이 쉼터 기능을 넘어 평생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양혜령 "아파트지역 초등학교 건립 협조"



양혜령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3일 "동구 지역 신규 아파트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젊은 입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교육 문제이다"면서 "특히 적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교육 당국 및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당선 후 교육 정책을 밝혔다.

양 후보는 "우리 동구는 한 때 호남의 교육 1번지라는 명성을 얻을 만큼 수준 높은 교육도시였다"면서 "이러한 동구의 전통은 도심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우 "동구를 스마트도시화 만들겠다"



김영우 바른미래당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3일 "동구 중심지역에 'Wi-Fi 프리존'을 운영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 동구를 '스마트도시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주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원도심인 동구의 관련 인프라 구축은 미흡하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구 관내 중심지역에 Wi-Fi 프리존을 운영하고, 사물인터넷을 실생활에 활용·연계해 주민 편의성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도시를 구축한다면 편의성과 안전성 증진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무 "광양보건대 정상화 추진"



김재무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예비후보는 3일 "폐교 위기에 놓인 전남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남도도와 광양시가 광양보건대 재정기여금을 공동 출연해 학교를 정상화 하도록 하겠다"면서 "김영록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와 뜻을 같이했으며 교육부장관을 만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중지 등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선되면 광양보건대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등 학교 정상화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oticon PEOPLE FIRST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오티콘 보청기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